

太陰人과 熱多寒少湯의 論攷

이 상 주



太陰人は 본래 肝이 크고 肺가 작기 때문에 허리통이 굵고 발달되었으며 肺가 있는 가슴에서 목과 목덜미가 弱하다. 즉 金臟腑가 弱하고 木臟腑가 盛하므로 肺大腸을 補하고 肝膽을 瀉하여야 할 경우가 많다

太陰人は 先天的으로 대륙성 기질을 타고 났기때문에 체격이 가장 큰 편이며 피부는 거칠고 손발이 잘 트며 땀구멍이 성글어 땀을 많이 흘린다. 땀을 많이 흘려도 건강에 이상이 생기지 않는다.

왜 太陰人は 땀구멍이 성글어 땀을 많이 흘릴까를 考察하여보면 그 이유는 본래 太陰人は 몸에 수분이 많기 때문에 땀을 흘려야 신진대사가 잘 되어 건강을 유지한다

또 몸에 수분이 많기 때문에 대변이 滑하다 이것도 땀을 흘려서 신진대사를 시켜 주어야 좋아진다.

또 폐활량이 弱해서 다른 체질보다 숨이 차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피부호흡을 위하여 땀을 많이 흘려서 호흡을 조절하는 공이 있다.

李濟馬先生任께서는 太陰人は 땀을 흘리면 無病이라 하셨다.

그러므로 만약 太陰人에게 少陰人藥을 써서 汗線을 막아 땀을 못 흘리게 하면 그禍는 이루 形言할 수 없을 만큼 害가 온다.

汗線을 열어 땀을 흘려야 內熱을 發散시켜 運化作用이 순조로워진다 이런 경우에 少陰人藥을 써서 止汗을 시키면 皮下에 멍우리가 생기거나 또 임파선에도 멍우리가 생길 수 있고 또 毛細血管이 수축되면서 血行障礙가 생기어 中風症이 생길 수 있다. 이때 속히 熱多寒少湯을 써서 解肌시켜주지 않으면 病症은 더욱 심해지게 된다

이런 경우에 열다한소탕을 쓰면 神效하다

太陰人の 熱多寒少湯症에 少陰人으로 잘못 보고 人蔘 桂枝와 같은 溫藥이나 龍骨 牡蠣와 같은 수렴약을 쓰면 毛細血管이 수축되어 手足은 冷해지고 精神은 健忘해진다.

이때 熱多寒少湯으로 解肌運化시켜주면 즉시 手足은 따뜻해지고 精神은 총명해지고 健忘증은 살아지는 것을 누차 경험하였다

필자는 本方을 쓸 때마다 또 少陰人の 名方 香附子八物湯 少陽人の 名方 前胡地黃湯을 쓸 때마다 醫聖 李濟馬 先生께 고마움에 感謝한다

이상 太陰人과 熱多寒少湯의 論攷를 마치며 앞으로도 더 연구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귀인동 906-12 성수당한약방)